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200마리 눈앞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원 화천 방문 대응 주문 현재 164마리...“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멧돼지 확산을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강원 화천 지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에서 발견된 ASF 양성 반응 멧돼지 개체수는 200마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화

천군을 찾아 야생멧돼지 이동차단 울타리와 폐사체 매몰지, 소독통제 초소 등 ASF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ASF 양성 반응이 검출된 야생멧돼지 수가 164마리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강원 화천 지역에서 폐사체 발견과 양성 검출이 늘

고 있다. 조 장관은 먼저 민통선 내 화천읍 풍산리에 위치한 폐사체 매몰지 6곳을 살폈다. 이들 매몰지는 지난달 8~16일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를 묻은 곳이다. 생석회 도포, 경교안내관 부착 등 사후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그는 야생멧돼지가 목욕을 하는 공간이나 몸을 비비는 나무 등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도 빼지없이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멧돼지들의 남하를 방지

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구간을 찾아 훼손 여부, 출입문 잠금 상태 등을 점검적으로 점검했다. 산천어 축제를 앞둔 시나 출입차량·관광객 소독시설도 살펴봤다. 조 장관은 “화천 지역에서는 양성 개체가 광역울타리와 인접해 발생하고 있어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부대와 협조해 폐사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울타리 관리와 현장 소독 등 바이러스 방역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딩 빈 혈액 저장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에서 직원이 딩 빈 혈액 저장고를 정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2번 확진환자 퇴원... ‘최종 완치’ 판정

2회 이상 바이러스 미검출 국립중앙의료원은 5일 오후 기자회견 열고 24일 입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번째 확진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다. 2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 파견된 한국 국적의 55세 남성으로 1월10일부터 증상을 보여 22일 상해를 경유해 입국한 뒤 능동감시를 받던 중 23일 보건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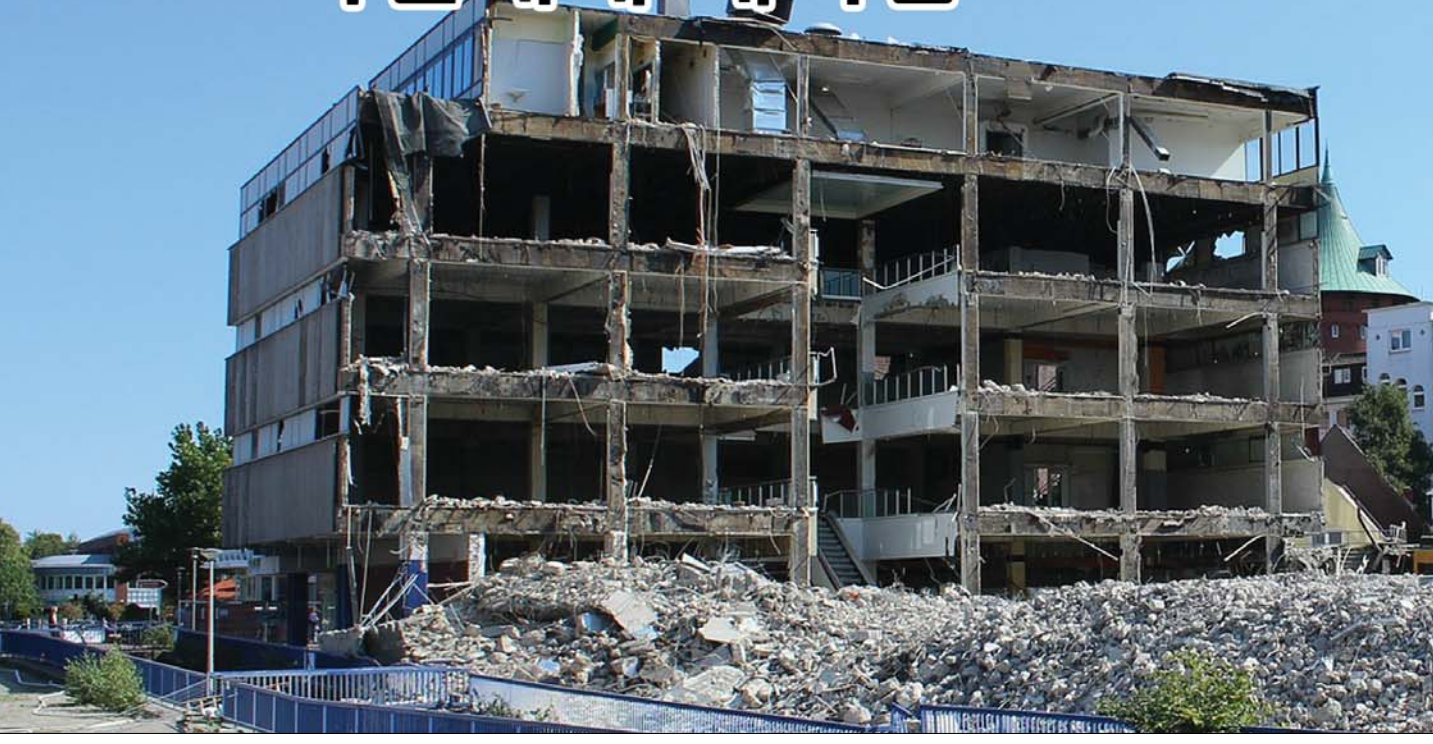
중앙의료원은 2번 환자에 대해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증상이 없어진 뒤 2회 이상 바이러스 미검출 소견이 나오자 지난 4일 확진환자 중 처음으로 격리 해제 및 퇴원 결정을 내렸다. 특히 중앙의료원은 “퇴원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에서 중증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해 정확한 임상 정보 공유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중앙의료원은 확진환자 주치의의 간담회를 확대해 마련된 ‘병원, 주치의, 전문가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임상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은 “중앙임상TF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 전문가 네트워크”라며 “확진환자의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치료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항소 “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주장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첫 항소심이 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5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안인득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이 진행됐다. 연녹색의 수의를 입고 검은 볼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서 출석한 안인득은 1심 재판에 비해 차분히 답변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부정부패 및 비리가 심각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항소심술은 여전했다. 이날 변호인은 “안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안인득은 “사건 당일 술도 마셨고 10여년 동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오해와 갈등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고 답했다. 안은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에 대해 열람신청을 했지만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측의 항소에 대해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장을 주문했다. 항소심은 3월 4일 오후 속행할 예정이다.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